

민주당, 허위 경력서류 발급 '논총'

광주 북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 두고 '잡음'

광주시당 "지역위원회 책임" 떠넘기기 논란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 북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허위 경력서류'를 발급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광주 북구의회와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북구의회는 5급 상당의 정책·입법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민주당 당원 A씨를 합격 공고한 뒤 신원조회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민주당 광주 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5년, 시당 정책위원

경력 8개월 등의 이력이 적힌 경력증명서를 북구의회에 제출해 합격했다.

하지만 A씨의 사무국장 경력 5년 중 1년여는 다른 사람이 같은 직책으로 근무한 이력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광주 북구지역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쉬쉬'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A씨가 어떤 직책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직인을 찍어 경력을 인정해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당은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논란에 대해 지역위원회가 협조 요청을 해서 발급했다며 지역위원회 책임을 떠넘겼다.

시당 관계자는 "지역위 사무국장이라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무했다는 지를 시당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위에서는 경력 발급을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경력을 발급을 해주라 하면 발급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 경력은 지

역위가 협조 요청을 해서 발급하는 것"이라며 "지역위에서 직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지역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 정당 소속 북구의원은 "지역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아니냐"며 "시당의 입장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 혈세로 다녀온 '거짓 출장'의 행태까지 보면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주민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며 "주민보다는 시당에만 잘 보이며 하고 관심을 두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뉴스1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10곳 적발

광주시는 산업단지 내·외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5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법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위해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다.

시·구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미세먼지 특별 감시원 등 15개반 5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5개 자치구를 돌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하게 16일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린 조치원소방서의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구급대응훈련에서 구조대와 구급대원들이 화학물질 누출 화재 상황을 가정, 보호장비를 이용해 구조한 환자를 구급차로 후송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노조 "채용 비리 처벌·체불임금 지급하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와 체불임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지급 명령 이행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16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앞에서 '병원 주인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채용비리 사무국장은 물러나고 병원장은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우리 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며 "하지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러도 솥방망이 처벌만 받고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지난 8월 근로감독 결과 광주지방노동청은 그동안 미지급한 연장·야간근로수당 34억원을 간호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병원에 명령했다"며 "그러나 병원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이 간호기록을 수정하기도 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간호사들을 개인정보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2019년 임금·단체협상이 5차례 진행됐으나 '부정·부패·비리 당사자인 사무국장을 교섭위원에서 배제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병원장은 절대 뺄 수 없다'며 교섭 원칙조차 함의하지 못하고 노사 대화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더이상 병원이 편중된 권력 구조 속에서 사유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채용비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피해자 구제·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폭언·폭행·성폭력·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해 행복한 병원을 만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겠다"며 "1960명 조합원은 공정한 병원, 행복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여직원 '스토킹·납치' 코레일 간부 검찰 송치

광주 광산경찰서는 20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레일 간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여직원 B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문자와 카톡을 보내고 집앞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지난 16일에는 퇴근 후 귀가하는 B씨를 납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꼬리쳤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혹과 주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현재 자체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앞 놀이터서 음란행위 20대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 음란 등)로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주민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놀이터 앞에는 어린이집이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구례서 벼베기 작업 50대 콤바인에 깔려 숨져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하던 50대가 콤바인에 깔려 숨졌다.

16일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쯤 구례군 산동면의 한 논에서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하던 A씨가 작업 도중 콤바인에 깔린 것을 함께 작업하던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흉과 벼가 영긴 눈에 콤바인이 빠져 전진하지 못하자 콤바인에서 내려 이를 제거하던 중 콤바인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 교차로서 직진-좌회전 차 충돌 6명 부상

15일 오후 6시37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그랜저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투싼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의 왼쪽을 충격받은 A씨(40)의 그랜저가 오른쪽으로 전도됐고, A씨를 포함 투싼 운전자 B씨(72)와 동승자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교차로에서 A씨 그랜저가 직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B씨의 투싼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었던 점으로 마취 신호위반 혹은 안전운전 부주의 등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피스텔서 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

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쯤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45)와 다투다 흉기로 B씨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